

나주시·日구라요시시, 분야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자매결연 31주년 우호 돈독 구라요시시 대표단 나주 방문 농업·관광·에너지 분야 등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 강조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31년째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市) 대표단이 나주를 찾아 미래지향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상호 모색했다.

나주시는 지난 29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구라요시시 대표단과의 환담을 통해 청소년 문화 체험, 농업, 스포츠, 각종 행사 초청 등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라요시시 히로타 가즈야스 시장, 후쿠다나 나옴이 시의회의장 등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지난 28일 입국했다.

2박3일 일정으로 29일 자매결연도시인 나주시를 방문해 환담 및 현장 시찰을, 30일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5회 한·일 공동세미나에 참석했다.

나주시 방문은 지난해 11월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한 윤병태 시장의 구라요시시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방학 기간 청소년 문화 교류, 농특산품 홍보 부스 운영, 축제 행사 초청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환담장엔 두 지자체장과 후쿠다나 시의회의장, 김관용 나주시의회 부의장, 교류 분야 관련 간부 공무원, 통역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제 감각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 겨울·봄방학 기간 구라요시시 청소년들의 나주 방문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단발적 교류가 아닌 지속적 교류를 목표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어 “양 도시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기간산업인 농업이 발달해있지만 공동화 현상에 따른 농촌·원도심 활성화라는 공통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농생명, 관광, 에너지신산업 등 3개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



윤병태(왼쪽 7번째) 나주시장이 지난 29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히로타 가즈야스(왼쪽 8번째)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시장 등 대표단과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해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도시 축제 기간 중 교류도시 홍보 및 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과 10월 통합축제, 마라톤 대회와 같은 상호 초청 가능한 행사 목록을 교환해 분야별 교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히로타 카즈야스 구라요시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청소년 교류를 재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원도심 공동화라는 공통적 과제에 공감하며 농

업, 관광 분야 교류 인구 증진을 통해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가자”고 말했다.

두 지자체장은 이어 기념품을 교환했다. 윤 시장은 다기 세트, 불회사에서 재배한 차를, 히로타 시장은 와사비 오일 등 지역 특산품을 각각 선물했다.

구라요시시 대표단은 환담 이후 500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나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영산강 정원 조성사업, 관광 10선과 연계한 나주읍성 스탬프·인력거 투어 등 현장 시찰을 하기도 했다. 나주·조대룡 기자



‘민·관 합동 통합사례회의’ 장성군, 위기가구 문제 해결

장성군이 최근 사회복지 전문가, 정신과 전문가, 읍·면 통합사례 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민관 합동 통합사례회의’는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문제를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회의다.

장성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위기가구에 심리치료 지원과 지속적인 상황 확인(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미영 장성군 주민복지과장은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위기가구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간담회’ 영광군, 농식품부장관 주도

영광군은 지난 29일 농촌의 식품 사막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간담회’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주도하에 영광군 묘량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 외에 전남도 행정부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시·군 담당국장, 묘량면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사)여민동락공동체 등이 참석했다.

영광군 여민동락의 이동장터, 포천 소홀 농협 행복장터 등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촌 마을의 식품 사막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 모델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는 농촌마을에 사라져가는 소매점,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일상적 장보기가 힘든 농촌에 사는 소외계층들에게 생필품을 싣는 트럭으로 마을을 방문, 판매하는 식의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이다.

이는 정부·지자체·민간 협업하에 이뤄지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동장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이동장터 시범지구 1호기 차량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농촌 마을 주민이 소매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지원하거나 생필품 배달뿐 아니라 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농촌 주민의 생필품 구매지원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의 발굴 및 시범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사업이 농촌 소외계층들의 식품 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광=김도은 기자



함평군은 지역 주민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주조 방법을 교육하는 ‘주조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주조학교’ 운영으로 지역 주민역량 강화

함평군이 주조학교 운영 등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주조학교’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열리며, 함평을 주민과 대동막걸리제조실(대표 임정택)이 협력해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주조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주조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주민들은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의 공유주방을 활용, 지역 행사 및 축제에서 배후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이 예정된 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건강·예술 동아리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센터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출연기관 경영평가 ‘나’ 등급

재단법인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곡성군이 실시한 2024년 경영실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3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재단은 87.41점을 획득해 지난해 86.93점보다 0.48점 상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평가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두 개 영역에서 리더십, 주요사업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조직 운영의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직의 역할과 사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 핵심가치, 그리고 9개 전략의 체계적 추진이 높이 인정받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단의 지속적인 자

체 개선 노력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활용하여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허성군 상임이사는 “재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단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병해충 방제 작업 진행

담양군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손꼽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푸르름을 위해 병해충 방제에 나선다.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시가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매년 장마철 고온 다습한 기후와 응애 등 병해충으로 인해 갈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피해 최소화과 푸르른 메타세쿼이아를 위해 오는 8월 4일까지 가로수 전문관리단을 투입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 구간 487주와 시가지 메타세쿼이아 625주에 대하여 응애 등 병해충 방제작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왕래가 잦은 생활권 지역임을 감안해 유동 인구가 적은 새벽 시간에 방제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담양=신재현 기자

폭염 피해 예방 총력 화순군, 무더위쉼터·살수차 등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연일 습도 높은 ‘습식 사우나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습도 높은 무더위가 지속되자 무더위쉼터, 살수차, 그늘막 등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화순군은 지난 25일 오후 실과소장 및 화순경찰서, 화순소방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군수 주재 ‘폭염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실시하여 분야별 폭염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26일 무더위쉼터를 직접 방문, 주민들에게 지역 현안을 듣고 폭염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화순군은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3대 운영 △횡단보도 그늘막 57개소 운영 △무더위쉼터 295개소 운영 △SNS, 마을방송, 전광판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피해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